

작품과의 소통



리카르도 바스바움, 대화 & 움직임 [설치 - 장소 + 집단적 대화], 2012

주요설명 : 작가와 작품에서도 관객과의 소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작업과정에 일반 대중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작가와의 소통을 통해 작품(작업)의 새로운 표현 및 소통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대상연령 : 9 - 11세

키 워 드 : 소통, 이야기, 참여

학습주제 : 우리는 작가와의 소통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배 경 : 사람들의 소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통이란 무엇일까?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함'이다. 즉 나와 타자간의 생각이 통하고 전달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은, 나의 입장과 다른 이의 입장의 경계에 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열려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려있는 대화는 작가의 작품과도 소통할 수 있다. 리카르도 바스바움은 "예술적 경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in an artistic experience?" 라는 물음을 던졌고 기

존에 수동적으로 예술가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던 관람객은 이제 그들이 발화의 주체가 되고, 예술가는 그들이 발화하고 기록한 것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관객과의 직접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였다. 리카르도 바스바움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소통을 통해 구체화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동의 순환을 유발하는 작품을 제작해왔다. 예컨대, 가운데 구멍이 난 흰색 오브제를 똑같이 제작하여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했다. 대신 사진, 글, 비디오, 음악... 그것을 사용한 기록을 남겨 작가에게 보내주기로 하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의 역할 바꾸기를 원하기도 했다.

수업 과정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참여 퍼포먼스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오브제를 사용한 관람객들의 소통의 기록물들을 감상한다. - 리카르도 바스바움의 작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요? ○ 생각 뒤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특이하게 바꿔 쓰고 있는 이미지나 '어린왕자의 보아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기유발한다.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활동 1 : 보아뱀 뱃속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큰 생각 잇기 <i>Big Garden of Thinking</i>'에서 보아뱀 뱃속에 꼬끼리 외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그려보고 발표한다. ○ 선택 활동 2 : 화장지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그룹으로 나눠 화장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다. ○ 선택 활동 3 : 전시장에서 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으로 오브제를 가지고 가서 작품과 연결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생각의 정원 <i>Garden of Thinkin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들이 참여한 작품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요? - 리카르도 바스바움의 오브제와 꼬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 리카르도 바스바움으로부터 오브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해봅시다! -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리카르도 바스바움 외에 다른 작품에서 '작가와 관객이 함께하는 작품'이 있나요? 있다면 참여 하고 싶은가요? </div>	<p>Tip</p> <p>화장지로 묶기, 물감 뿌리기, 붙이기, 몸에 감기, 찰추기 등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할 수 있다.</p>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으로 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한 사진을 빔 프로젝트로 함께 보며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 사용한 것인지 이야기 나눠 서로 다양한 생각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한다. 	

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

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 은 교사들이 전시장과 학교에서 감상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참고자료 공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정원', '지혜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 참고 사진 (작가의 다른 작품)



작품제목 : 나-너 안무, 게임들과 운동들

(Me- You Choreographies, Games and Exercises)

리카르도 바스바움은 두 종류의 셔츠를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붉은 셔츠에는 나(Me), 노란 셔츠에는 너(You)라고 적혀 있었다. 작가는 특정 장소에 맞추어 그가 제작한 지시 사항을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그들은 작가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 과정이 완벽히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는 없기에 그룹 특징 혹은 개인 특징으로 작품을 완성시켰다.

▲ 참고자료(도입)

어린왕자의 보아 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서문에서,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라고 하였다. 본문 중 보아뱀의 경우가 그러하다. 어린왕자가 여섯 살 때 색연필로 그린, 코끼리를 통째로 삼키고 그걸 소화시키느라 여섯 달 동안 잠을 자는 보아뱀, 그러나 어른들은 어린왕자의 이 멋진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 답답한 어린왕자는 투덜거린다. “어린들은 꼭 설명을 해 주어야 해. 혼자서는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거든, 그렇다고 늘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 주자니 어린이들로서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니야”라고

Tip

아이들에겐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들이 있다. '더 큰 생각 잇기 *Big Garden of Thinking*' 보아뱀 뱃속 이야기를 그리기 전에 동기유발할 수 있다.

▲ 용어설명

<p>○ 퍼포먼스(Performance) : 관중들에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내용을 신체 그 자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예술 행위이다.</p>	<p>Tip 작가는 관람객과의 참여 퍼포먼스로 소통 하고 있다.</p>
<p>○ 오브제(Objet) : 일반적으로는 물건, 물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이다. 나뭇가지라든가 동물의 가죽 등 자연적인 물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전자 등의 공산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 생활에 쓰이는 모든 물체는 그 나름의 용도나 기능 또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나 이러한 물체가 일단 오브제로 쓰이면 물체가 갖는 일상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초월해서, 의외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새로운 표현 방법이다.</p>	

